공무국외출장(일본) 결과보고서
(2025. 5. 26 ~ 5. 30)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일본 –

2025. 5

충남연구원

- 목 차 -

제1장. 공무 국외출장 개요

1. 출장 개요 ····· 1
2. 출장 목적과 방향성 ····· 1
3. 출장자 및 역할 ····· 1
4. 출장 지역 및 일정 ····· 2

제2장. 공무 국외출장 활동내역

1. 일본 일반현황 ····· 3
2. (기관) 고향회귀·이주교류추진기구 방문 ····· 3
3. (기관) 시민섹터정책기구 방문 ····· 12
4. (기관)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방문 ····· 18
5. (사례) 청년마을 사례(아타미시) 현장 답사 ····· 24
6. 충청남도 정책적 시사점 ····· 28

제1장. 공무 국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 출장 기간 : 2025년 5월 26일(월) ~ 5월 30일(금), (4박 5일)

○ 출장국 : 일본(도쿄・아타미시 등)

○ 출장자 : (충남연구원) 박춘섭, 홍은일 (충청남도청) 남성연, 정관용

2. 출장목적과 방향성

○ 본 출장은 전략과제 '충청남도 청년마을 활성화 방안연구' 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 소멸을 경험 및 대응한 일본 사례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지방정주(및 정착) 방향과 연구의 인사이트를 모색하고자 함

○ 출장은 정책과정 즉, ①정책입안→②정책수행→③현장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관련기관 방문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도록 계획함

○ 특히 현장의 경우, 본 과제의 주제인 청년마을 활성화에 맞추어, 청년들의 사업현장(아타미)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시민센터정책기구)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연구의 시야를 넓히도록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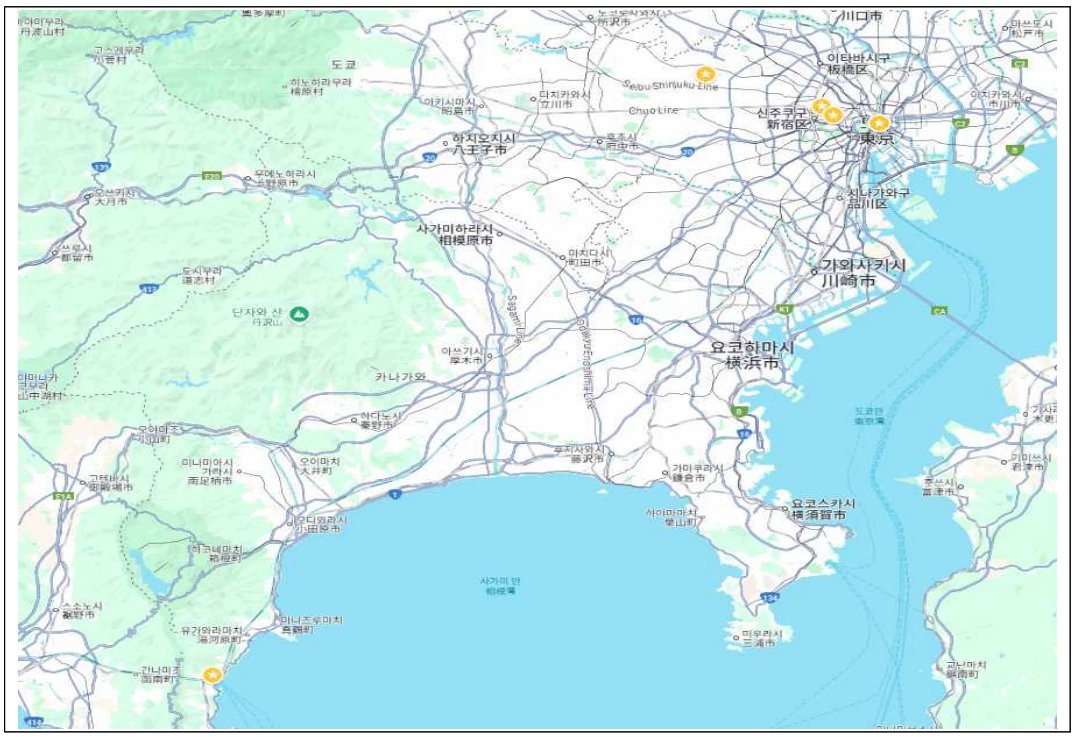
○ 또한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등 일선 공무원과 연계한 국외출장을 추진함으로써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모색하였음

3. 출장자 및 역할

출장자	직위	출장자 역할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획 및 운영 총괄 - 사전컨택·일정조율 및 질의서 작성 - 연구과제 시사점 발굴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 방문기관 사전조사 -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내용정리 - 연구과제 시사점 발굴
남성연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 현장답사 총괄 - 충청남도 청년정책 소개 - 관련기관간 교류협력
정관용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 주무관	- 기획 및 운영 조율 - 충남도 청년정책 중점사업 관련 질의 - 정책사업 시사점 발굴

4. 출장지역 및 일정

1) 출장지역 : 도쿄도 · 아타미시 등



2) 주요 일정

일자	방문지 및 목적	비고
5월27일 (화)	▪ 고향회귀이주교류추진기구 - 지역부흥협력대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등 청취 ▪ 시민섹터정책기구 - 협동조합·시민단체 등 청년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청취	도쿄도
5월28일 (수)	▪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 일본 지역청년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현황, 과제 등 청취 ▪ 충청남도 동경사무소 - 충청남도 동경 사무소 활동 및 청년정책 연계방향	도쿄도
5월29일 (목)	▪ 청년마을 사례 (㈜Gensen& Co) - 청년주도 마을만들기 현장방문 및 현황질의 응답	아타미시 ㈜Gensen& Co

제2장. 공무 국외출장 활동내역

1. 일본 일반현황

구분		내용
일반현황		
	국명	일본국(日本, Japan)
	수도	도쿄(東京, Tokyo)
	인구	1억 2568만명 (2021, World Bank)
	면적	37만 8000㎢ (한반도의 약 1.7배)
	종교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기후	냉대 기후에서 열대기후까지, 지형과 해류의 영향에 따라 다양
경제현황		
	GDP	4,9409억$(2021, World Bank)
	1인당 GDP	3만 9,312$(2021, World Bank) *우리나라 3만 5,168$
	경제성장률	1.7%(2021, World Bank)
	총 교역액	1조 5,302억$(2021, 일본무역진흥기구)
	물가상승률	-0.2%(2021, World Bank)
	실업률	2.8%(2021, World Bank)
	외환보유고	1조 2,276억불(2022.12월, 日재무성)

자료 : 외교부 홈페이지

2. 고향회귀·이주교류추진기구 방문

1) 사업 개요

▮ 개요

◦ 명칭: 공익사단법인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JOIN-FURUSATO, Japan Organization for Internal Migration)

◦ JOIN-FURUSATO 은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와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인구 감소 사회에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

▮ 목적

◦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이주 및 교류를 통해 일본 전역의 지역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활동방침은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주,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교류를 추진하고, 인구감소사회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요연혁

◦ 2006년 3월 총무성의 [인구감소지자체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회]에서 시작

◦ 2007년 10월 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 내의 임의단체로 [이주·교류추진기구] 설립

◦ 2014년 4월 일반사단법인 [이주·교류추진기구] 설립

◦ 2025년 3, 4월 공익사단법인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 으로 법인격 변경 및 명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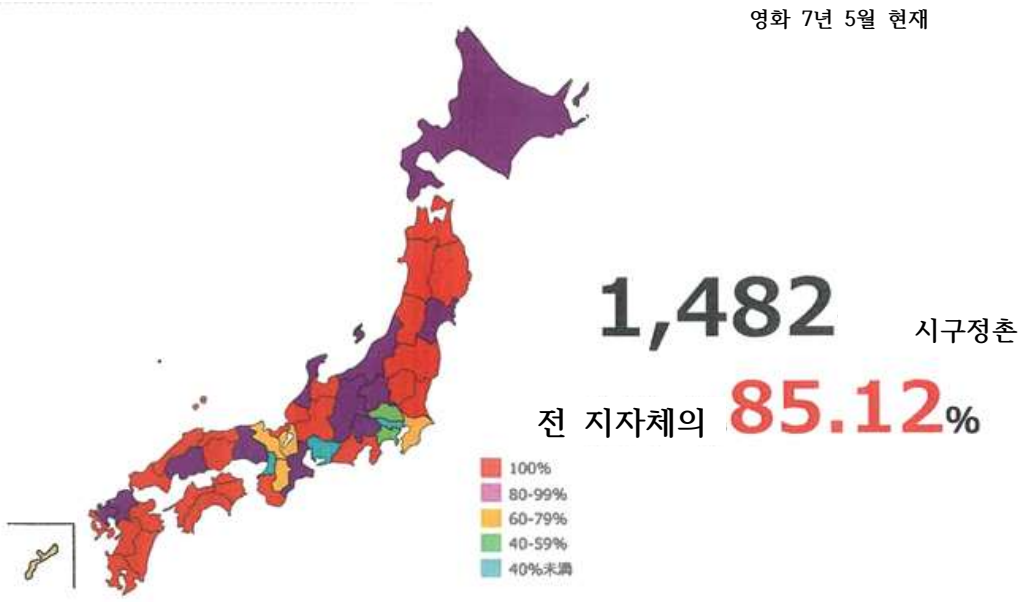
▌활동흐름 및 회원

◦ 2006년 총무성(한국 행안부의 역할) 산하에서 시작. 현재 지자체가 85%정도 참여, 민간회사 55개사가 참여하는 회원조직체로 구성

- 회원은 민간법인과 지자체로 구성됨. 민간법인의 경우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지역법인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은 연 백만엔, 일반회원은 오십만엔의 연회비를, 지역법인회원은 십만엔을 연회비 납부하며, 지자체는 회비없음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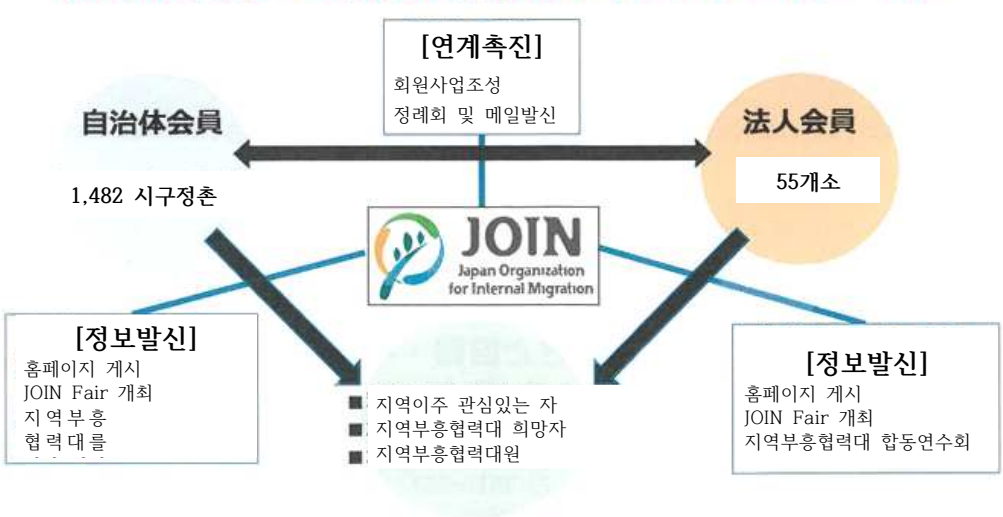
[그림 1] 민간법인 회원리스트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그림 2] 지자체 참여비율

◦ 사업은 ①이주와 교류희망자를 위한 정보발신, ②회원간 매칭사업(조성사업), ③지역부흥협력대사업, ④지자체 및 국가사업지원, ⑤이주에 관한 조사연구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운영비(총무성 복권기금)과 회원사의 연회비 등으로 구성

- 연회비의 경우, 많은 부분은 회원들에게 조성사업의 자금으로 제공하며, 조성사업의 내용은 공익적 활동사업

◦ 조직구성은 법인회원과 지자체, 기업에서 파견된 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타 사업전문가 (지역부흥협력대원 경험자 등)

- 조직은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서포트데스크로서 2명(지역부흥협력대) 등 근무

2) 주요사업

▮ 이주교류 희망자에 대한 정보발신

◦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정보발신

- 웹 사이트 "Nippon Migration Exchange Navi"의 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이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매력, 생활 정보, 일자리, 이벤트 등을 소개

- 일자리, 빈집 정보제공: 「구인 정보」와 「빈집 정보」의 페이지에서는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현재 매달 35만뷰 정도로 호응도가 높음

ニッポン移住·交流ナビ
https://www.iju-join.jp/

地域おこし協力隊
https://www.iju-join.jp/chiikiokoshi/

JOIN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ju.koryu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 JOIN 이주교류 및 지역부흥페어(축제) 개최

- 매년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의 매력을 직접 홍보하고, 이주 상담 및 체험담을 공유

- 민간회사(회원)의 참여는 지역이주 희망자에게 취업,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높으며, 도쿄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등 적극적

- 이와 같은 기업참여는 일본의 지방창생이라는 정부정책에의 호응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ESG 추진 및 **기업형 고향납세(고향사랑기부제)** 등이 존재

* 한국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를 개인으로만 한정한 반면, 일본은 법인까지 가능한 기업형 고향납세제도를 운영중 (2016년~)

▼ セミナーの様子

▼ マルシェの様子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 회원사의 매칭지원

◦ 회원정례회의(년2회 등), 법인회원교류회

- 법인 및 지자체회원, 총무성 등과 교류촉진 등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방 창생에 관한 과제와 대응 방안 논의의 장 제공

◦ 회원간 일괄 메일 서비스 (BtoG, GtoB, BtoB)

◦ 콜라보 사업 조성

- 민관협력을 통한 이주교류비즈니스 창조사업 조성추진
- 2025년의 경우, ㈜공동통신사의 고치현에서 문화이벤트

홋카이도 카미노구니정 ㈜JTB과 공동으로 마을기반구축사업 추진

▮ 지방협력부흥대사업지원

◦ 지방협력부흥대(원)의 정주를 위한 기업지원세미나

* 임기종료후의 지역협력부흥대원의 정주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 지방협력부흥대와 법인회원간 교류회 개최

- 지역만들기 등 탐색, 대원간 교류, 기업연계한 새로운 지역만들기 추진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 지역협력부흥대 서포트데스크 운영

- 총무성의 사업인 지역협력부흥대 서포트 데스크 사업수주. 전문상담원(부흥대 경험자 등)을 두고 중간지원

3)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현황과 과제

▮ 개요

◦ 개요: 도시에서 과소지역(지방) 등의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등록 및 생활거점을 옮긴 사람을 지자체가 [지역협력부흥대원]으로 위촉

◦ 활동: 대원은 일정기간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역브랜드, 지역특산품의 개발, 판매, 홍보 등 **'지역부흥'(地域おこし)**을 지원하고, 농수산업체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 **'지역협력'(地域協力)**을 하면서 지역의 정주와 정착을 모색

◦ 선발: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JOIN 홈페이지 등 협력대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

-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재(협력대원)상을 올리면 청년들이 지원하는 방식

- 지자체의 필요인재는 현장수요 반영하여 추진

◦ 주체와 기간: 지자체(지방공공단체)이며, 활동기간은 1년에서 3년

◦ 비용: 총무성에서 지자체 필요경비 350만엔 지급, 협력대원에게는 경비 등으로 최대 인당 550만엔 지급

- 총무성 지급비용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별도 이주지원금을 더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존재. 의료비, 무상급식 등 특색있는 지원체계 존재함

▮ 현황 및 효과

◦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31개 지자체에 89명에서 2023년 현재 1,164지자체에 7,200명을 위촉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2026년까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균 지역당 7~8명 정도이지만, 어떤 지역은 50명 정도인 경우도 있는 등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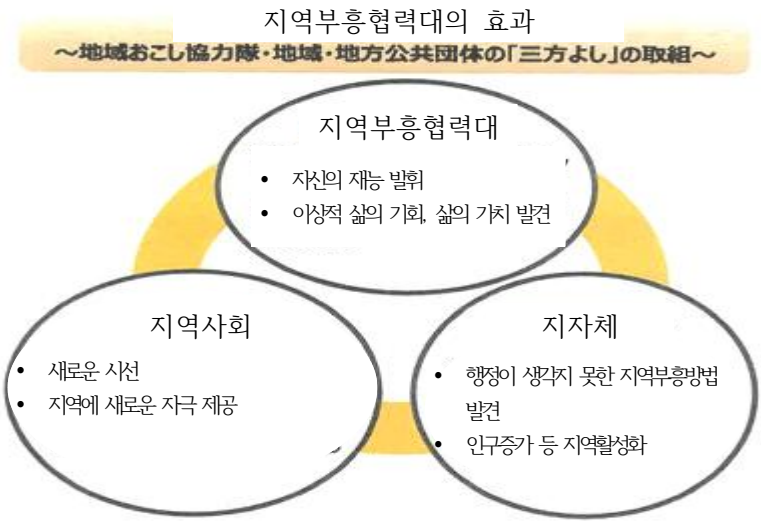
〈표 1〉 지역부흥협력대원 위촉 및 위촉 지자체 추이

年度	21年度	22年度	23年度	24年度	25年度	26年度	27年度	28年度	29年度	30年度	元年度	2年度	3年度	4年度	5年度
隊員数	89人	257人	413人	617人	978人	1,629人	2,799人	4,090人	4,976人	5,530人	5,503人	5,560人	6,015人	6,447人	7,200人
自治体数	31団体	90団体	147団体	207団体	318団体	444団体	673団体	886団体	997団体	1,061団体	1,071団体	1,065団体	1,085団体	1,116団体	1,164団体

출처: 총무성 자료(2025.1.24.)

◦ 대원의 40%은 여성이고, 70%는 청년세대(20~30대)이며, 최근 5년내 임기종료후 70%정도가 지역에 그대로 정착한 결과(2023년 현재)

◦ 이를 통해 협력대원, 지역, 지자체의 효과가 높음



출처: JOIN-FURSATO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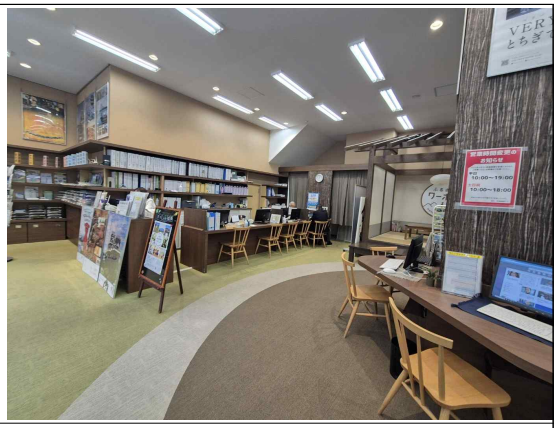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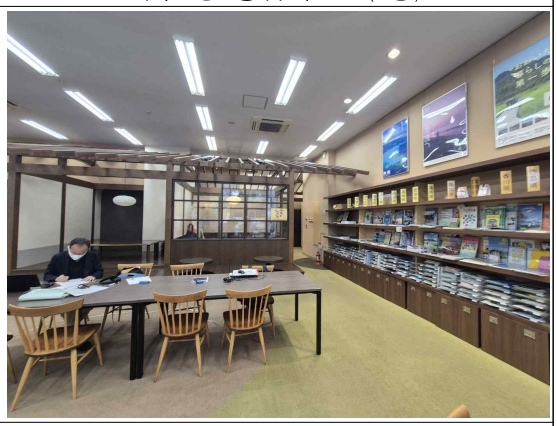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부흥협력대 도입효과

▮ 지역정주 관련

◦ 협력대의 성공(지역정주)를 위해 지역과 협력대원간의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해 인턴십을 추진

- 1~2일의 단기체류 프로그램에서, 최대 3개월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
- 인턴십의 경우, 수당을 포함하여 추진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텃세'가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지역부흥협력대'를 도입한 측면이 존재

<table>
<tr><td>
</td><td>  </td></tr>
<tr><td>사무실 입구전경(1층)</td><td>이주 등 상담데스크(1층)</td></tr>
<tr><td> </td><td>  </td></tr>
<tr><td>이주관련 지자체 홍보물과 부스</td><td>이주페어 등 사용가능 오픈공간</td></tr>
<tr><td> </td><td> </td></tr>
<tr><td>JOIN 관계자 회의</td><td>JOIN 관계자 기념사진</td></tr>
</table>

3. 시민섹터정책기구 방문

1) 사업 개요

▮ 개요

◦ 명칭: 사단법인 시민섹터정책기구(市民セクター政策機構, Citizen Sector Policy Organization)

◦ 1979년 사회운동연구센터로 설립되어, 1996년에 시민섹터정책기구로 개편됨. 2017년에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 학자·연구자, 생산자, 워커즈 콜렉티브, 네트워크 운동, 생활클럽 단협·연합회의 참여와 회비에 의해, 생활클럽운동그룹 전체의 싱크탱크로서 조사·연구 활동 추진

* 생활클럽은 일본의 대표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삶, 안전한 식품, 환경보호, 소비자 주권을 원칙으로 삼는 조합으로, 1965년 도쿄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창립하였음. 일본전역에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름. 2023년 현재 전국 28개 생활클럽, 조합원 수 약 41.7만명, 공급액 1,000억엔임

출처: 생활클럽 지속가능보고서(2023년)

[그림 4] 생활클럽의 사업현황

▌목적

◦ 시민사회와 비영리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주요사업

◦ ①조사 및 연구사업, ②홍보사업, ③교육 및 연수사업으로 구분하며, 24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1) 조사·연구 사업

- 생활클럽 조합원상 및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번역·전자책 출판
-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 식량·농업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사회적 연대경제의 추진
- 지역 자치·시민 정치에 관한 조사·연구

2) 홍보 사업

- 계간 『사회운동』 발행
- 사회경제 세미나 개최

3) 교육·연수 사업

- 생활클럽 차기 임직원 리더 연수
- 계간 『사회운동』을 활용한 학습회 개최

2) 생활클럽을 중심으로 한 청년지원 사례

▮ 가나가와현 생활클럽의 청년지원 개요

◦ 가나가와현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은 청년 일자리지원, 은둔청년지원, 주거지원, 미혼모지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생활클럽의 청년지원의 특징은 장기무직자, 은둔형 외톨이 등에 특화되어 있고, 단계별 프로그램, 즉 준비기(생활리듬 개선, 자기 이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서부터 사회참여, 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 관계부처의 협조 또는 협업, 위탁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일자리(취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 자마시(座間市) '일하는 자마「はたらっく・ざま」'라는 취로준비지원사업

- 생활곤란자나 장기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리듬 개선, 자기이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 단계적 취업준비 프로그램 통해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의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시가라시모군(足柄下郡) '일하는 유가와라「はたらっく・ゆがわら」'라는 취로준비지원 및 주거생활지원사업

- 취업과 주거지원을 통합 제공하여, 주거지가 없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야세시(綾瀬市) '일하는 아야세「はたらく・あやせ」'라는 취로준비지원사업

- 구직활동 곤란자, 수급자, 생활곤란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며, 소규모 강의, 그룹 워크숍,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생활 기반 안정 및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도모

◦ 자마시(座間市) '모두의 쉼터 여기서부터「みんなの居場所 ここから」'라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당사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류의 장 제공, 전문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을 지원하여 점진적인 사회참여를 유도

▮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 사업 '홈타운 미나미「ホームタウンみなみ」'

- 2023년 4월, 요코하마생활클럽과 NPO법인 사구람보가 공동기획하고 국토교통성 '주거환경정비 모델사업'을 통해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시키미다이(四季美台)에 있는 생활클럽 배송센터 3층을 개조하여 복합시설인 홈타운 미나미를 조성. 쉐어하우스(여성전용 4실, 모자가정용 1실)와 식당, 보육공간으로 구성

- 시설은 사구람보가 운영하며, 목표는 주거불안정한 여성(싱글맘 등)의 안심 주거공간 제공하고, 생활코디네이터가 입주자의 취업, 식생활, 보육 등 프로그램 및 공간 지원. 주거를 통한 인간관계 회복 등 목표로 추진 중

출처: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588.000002456.html

[그림 5] 홈타운 미나미 전경 및 내부구조

◦ 주거지원 사업 커뮤니티 베이스 쇼난「コミュニティベース湘南」'

- 2025년 5월 20일 오픈한 커뮤니티 베이스 쇼난은 후지사와시 UR 컴포르 단지내의 시설로, UR도시재생기구, 쇼난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 생협의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조성. 커뮤니티 카페, 다목적 공간, 푸드 팬트리 및 식당기반 보육공간으로 구성

3) 일본 시민사회의 청년지원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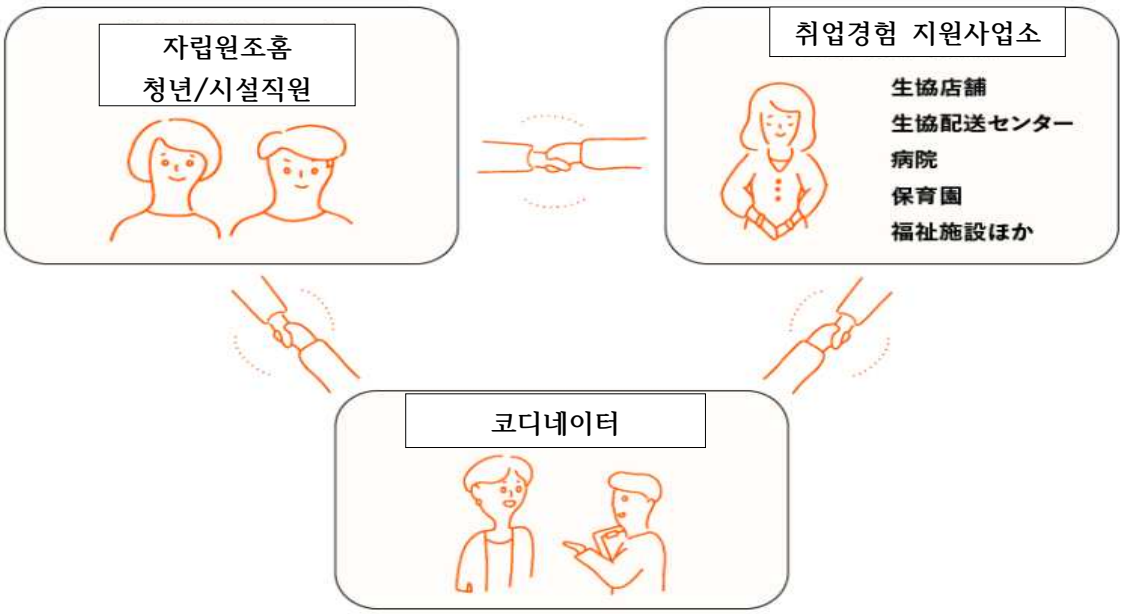
▮ 수도권 청년지원 네트워크 및 청년응원기금

◦ 수도권 청년지원 네트워크(首都圏若者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 이하 네트워크)는 아동복지시설 등 공적 지원하에 자란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힘을 충분히 발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민간의 네트워크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과 함께 동행·지원(伴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민과 민간단체들의 연합임

◦ 네트워크의 주요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경험프로그램으로, 자립지원시설과 생협을 중심으로한 사업체를 연계. 생활클럽뿐만 아니라, 팔시스템협동조합, COOP, 워커즈COOP,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네트워크의 주요사업인 청년응원기금은 청년에 대한 지원(伴走) 활동 경비보조 및 청년자립의 혁신적 사업분야(선구적 실천분야)에 대한 지원

- 청년응원기금의 매년 공모하여 지원하며, 24년의 경우, 8개 단체가 청년 지원활동의 경비보조(상한 150만엔) 지원, 선구실천분야(상한 300만엔)에 6개 단체를 지원



출처: https://wakamono-support.net/career/

[그림 6] 취업경험프로그램의 구조

4) 청년의 지방정주와 관련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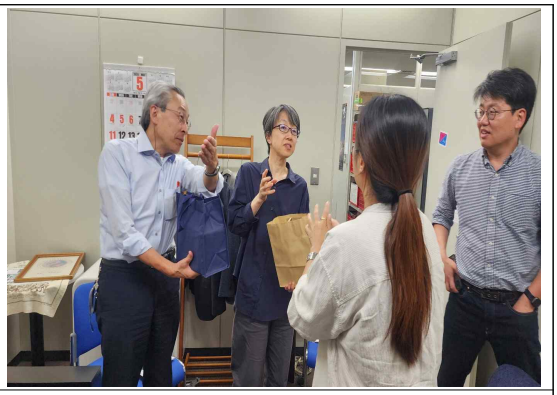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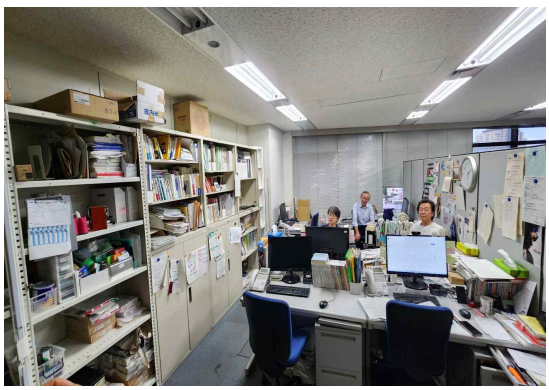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特定地域づくり事業協同組合)의 특징

◦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지원만들기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직이 가능한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기반한 사업협동조합을 의미. 특정지역만들기사업이란 N잡러(멀티워커), 계절적 노동수요에 대응한 복수의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파견사업 등을 말함

- 법률에는 지역사회의 유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인재(지역만들기인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한 점에 따라 특정지역만들기 협동조합의 인정제도와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가 존재

◦ 즉 이러한 법률제정과 추진은 지역소멸 위기지역에 농림어업, 상공업의 지역산업의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업협동조합을 도입하였고, 일본정부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뜻함

◦ 특정지역만들기협동조합은 지역의 일을 조합하여 일년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고, 협동조합에서는 직원(근로자)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구조로서, 근로자에게는 고용환경과 급여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지역에서는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후계자(근로자)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table>
<tr><td> </td><td>  </td></tr>
<tr><td>회의장면</td><td>회의장면</td></tr>
<tr><td>  </td><td>
</td></tr>
<tr><td>시민섹터정책기구 사무공간</td><td>시민섹터정책기구 출판물(한국협동조합사)</td></tr>
</table>

4.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방문

1) 사업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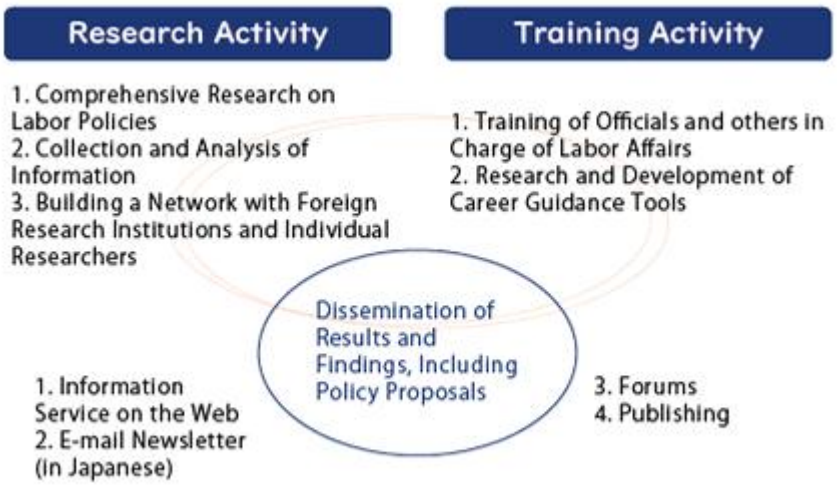
◦ 명칭: 독립행정법인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약자로 JILPT)

◦ 일본노동연구기구와 노동연구소가 통합되어 2003년 10월에 설립된 일본 후생노동성 관할 독립행정법인으로, 노동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연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2025년 기준 직원수 101명이며, 예산은 약 25.3억엔임

▮ 목적

◦ 구체적 기관의 목적은 일본 노동 정책의 기획 및 효과적 실행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생활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의 노동 관련 이슈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일본 행정 공무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함

◦ 연구활동은 ①노동정책 연구, ②정보수집 및 분석, ③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④정보제공(웹사이트 등), 연수활동으로는 ①노동행정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②진로지도도구 연구개발, ③포럼개최, ④출판 및 정책제안



출처: JILPT 제공자료

[그림 7] JILPT의 운영목적

▌주요사업(연구분야)

◦ 노동정책 관련 연구는 크게 외부노동시장(거시 및 미시), 내부고용시장(기업내 고용, 근로조건), 근로자 특성(청년, 여성 등) 3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동향 비교 등 다층적 연구 수행

출처: JILPT 제공자료

[그림 8] JILPT의 연구분야

◦ 5년 단위로 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현재 6개 주요주제와 12개 하위주제로 운영 중이며,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일본 노동정책의 문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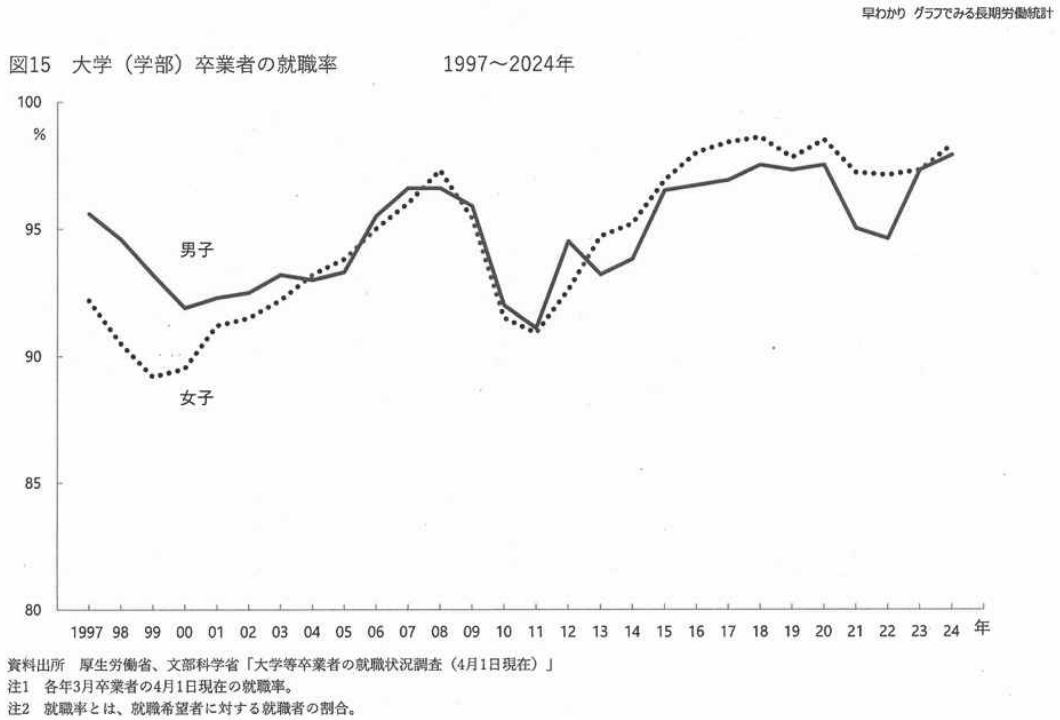
◦ 연구 추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연구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관련자에게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공하고 있음

2) 일본의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 신규졸업자 취직시스템의 약화

◦ 1990년대까지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은 당연시 됨. 즉 졸업전(대학 3학년 정도) 일할 곳이 확정되고 취업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업, 학교 행정이 관여했음

◦ 1990년대 발생한 경기침체(거품경제)로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2000년대 초반까지 청년실업 상승.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 급증하였음. 최근에 들어서 회복(90%이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JILPT 제공자료

[그림 9]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1997~2024년

◦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취업빙하기'라고 하고, 이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을 속하여 고용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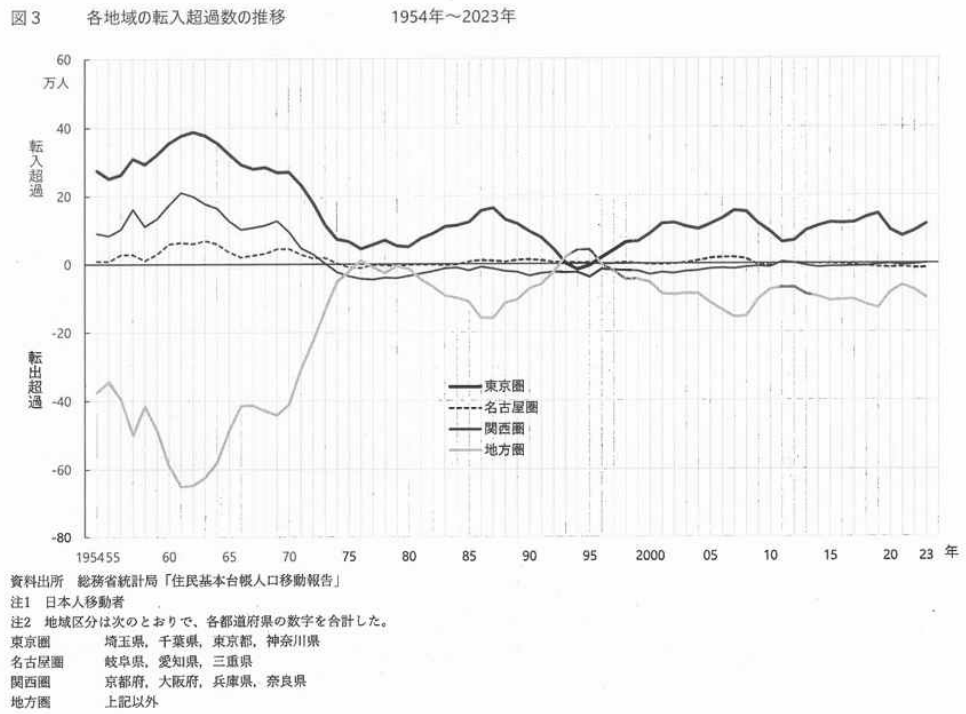
◦ 이에 대응에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었고, 이중 하나가 고용센터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인 하로워크(Hello Work, ハローワーク)에서의 청년특화사업(정책)을 추진중

◦ 또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블랙기업의 문제들이 존재하여 취업후 바로 퇴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등의 고용시장의 문제가 존재

▌수도권 집중과 청년문제

◦ 일본은 3대 도시권으로 불리는데 동경, 나고야, 오사카(간사이, 関西)를 중심으로 거대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도쿄 일극 집중이 심각해지고 있음

◦ 아래의 표를 보면,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 3대 도시권의 전입이 많았음. 그러나 나고야, 오사카에서 나온 사람들도 동경으로 가는 상황임



출처: JILPT 제공자료

[그림 10] 각 지역의 전입초과수의 추이, 1954~2023년

◦ 대부분의 이동하는 사람은 청년으로 10대에서 20대로 진학하는 사람들으로 볼 수 있음. (좋은) 대학이 동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한때 대학을 지방에 많이 짓자는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지방노동시장과 청년문제

◦ 대학 진학할 때 동경으로 오는걸 어쩔 수 없는데, 졸업이후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 중임. 그렇다면 지방에 일이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지방의 일자리의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음

◦ 일을 찾는 사람(구직)과 일을 주겠다는 사람(구인)의 비율이 있는데 지방은 일할 사람을 찾는 비율이 더 높음. 그러나 청년들이 가지 않음. 이유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은 요양, 건설 분야 등인데 청년들이 원하지 않음.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도시지역보다 적음

◦ 일본도 지방에 대학이 사라지고, 일류대학만 남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지방에서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미스매치)

◦ 따라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후생노동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원래 고용상황이 안 좋은 곳, 즉 일자리가 적은 지역에서만 했는데, 최근에는 이와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직업훈련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며, 동시에 회사 규모를 키우는 사업, 경영역량을 키우는 연수도 같이 함.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임

◦ 최근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임. 예를 들어 관광지는 관광업이 잘되게, 디지털, IT가 발달된 곳은 더 활성화 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부흥협력대도 좋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그리고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하는데 좋은 사업으로 판단됨

▌정책적 한계(격차 문제)

◦ 청년에게 지역의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를 하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후생노동성 및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등 취업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동경에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래서 지방으로 가라고 하기도 어려움

◦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면, 지방을 나오는 사람들 나와서 동경에 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격차도 문제임

<table>
<tr><td>
</td><td>
</td></tr>
<tr><td>노동연구연구기구 정문(현판)</td><td>발표장면(다카미 연구원)</td></tr>
<tr><td> </td><td> </td></tr>
<tr><td>회의장면</td><td>회의장면</td></tr>
</table>

5. 청년마을만들기 사례(아타미시) 현장 답사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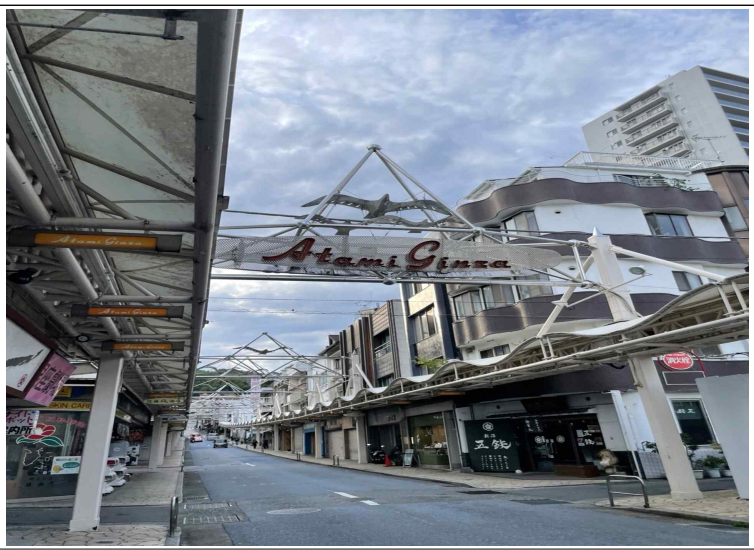
▮ 배경과 목적

◦ 한때 일본내 하와이라 불리는 온천도시인 아타미시(熱海市)가, 경제성장과 거품이 꺼지고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아타미시의 경제와 상점가의 주요고객이었던 기업연수시설이 폐쇄되면서 급격히 쇠락을 겪음

◦ 이러한 역사를 잘 아는 아타미 출신의 U턴 청년이 지역살리기를 하기 위해 시작한 마을 만들기로 지역과 거리 활성화하기 시작함. 청년 활동의 지역살리기, 지역활성화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 탐방지역과 청년그룹

◦ machimori(マチモリ)는 앞서 아타미 출신의 청년이 세운 기업으로, 100년후에도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비전으로 시 중심가(아타미 긴자)를 야모리(家守)개념을 차용하여 리노베이션하여 마을을 만들겠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임



활동지역 전경(아타미 긴자)

◦ 주요사업은 3가지로, 전술한 ①리노베이션과 창업지원, ②기업연계형 교육플랫폼, ③마치모리 부동산 사업임.

◦ ①리노베이션과 창업지원은 아타미긴자를 중심으로 상가 공실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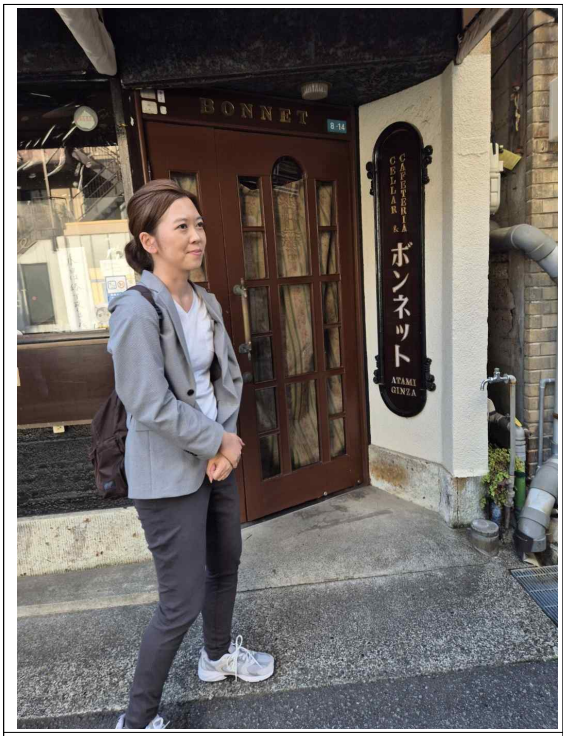
◦ ②기업연계형 교육플랫폼은 지역과제를 주제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CSR 및 SDGs 실천 역량을 강화하도록 기여 설계하여 추진. 기업연계형 교육플랫폼은 ㈜GeNSEn&co에서 추진하는데, machimori(マチモリ) 등 청년그룹과 함께 하는 청년기업

◦ ③마치모리 부동산 사업으로, 지역의 빈집, 빈상점을 빌리거나 구매하여 추진하는데, 앞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상점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음

2) 마을만들기 활동 답사

▮ 개요

◦ 우리는 ㈜GeNSEn&co의 대표인 사사키씨로부터 청년들의 마을활성화 목적과 현황, 어려움 등을 실제 마을을 둘러보며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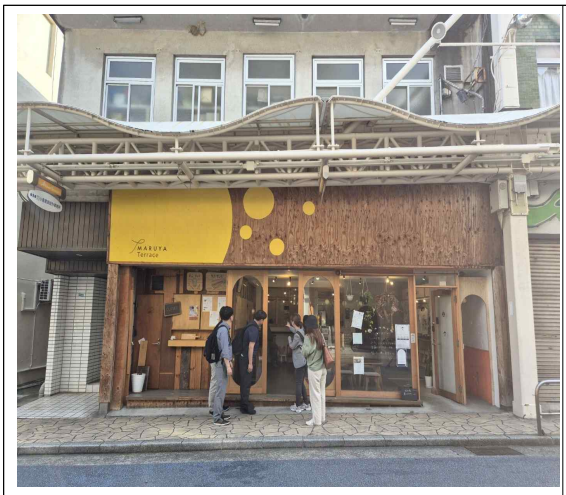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투어 가이드(사사키 대표)</td>
<td>아타미 지역 투어</td>
</tr>
</table>

◦ 아타미에 모인 청년들은 지역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거점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특히 외부 거대자본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없애고, 규격화되고 비싼 동네를 만드는 것(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공간 리모델링 사례와 그들의 방향성

◦ 우선 아타미 청년그룹은 공실이었던 상가에 제3의 공간으로서 3년간 카페 'CAFE RoCA'를 운영하였고, 이후 카페를 닫고 그때까지의 경험을 살려 게스트 하우스 MARUYA로 재탄생시켜,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손쉽게 아타미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숙소공간으로 발전시킴

◦ 이들은 게스트 하우스 숙박객의 조식은 앞 상가의 건어물가게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음



게스트 하우스 마루야마

게스트 하우스 내부시설

◦ 이를 위해서 빈 상가를 직접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었음. 아래와 같이 옛 영화관자리의 편집샵을 만들어 '레트로'한 공간을, 아타미 푸딩을 기획하고 청년가게를 오픈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 등지에서 찾아오는 아타미의 명소로 재탄생하였음

공간 리모델링 사례 (옛 영화관)

공간 리모델링 사례 (푸딩가게&숙박시설)

◦ 또한 지역의 문제, 즉 어르신들이 갈만 한 목욕탕이 없어지는 것이나, 임대료가 높아서 아타미에서 살 수 없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주거공간) 등을 만들어 내고 있었음

공간 리모델링(목욕탕)

공간리모델링(주거공간)

◦ 우리가 생각 할때는 치부와 같은 지역문화, 예를 들어서 홍등가 또는 유곽(遊廓)의 터, 스넥바(술집) 빌딩 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흉물이라고 정의 내리게 되는 건축물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서 바라보고 새롭게 정의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음

(구)홍등가 건물들

(구) 스넥바 빌딩

▌ 고민점과 한계

◦ 이러한 왕성하고 활발한 사업전개에도 아타미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함. 아직 매입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본의 한계들을 절감한다고 함

◦ 또한 구시가지에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매입 등을 추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함.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아타미시 청년그룹과 청년사업가들에게 숙제와 같다고 함

6. 정책적 시사점

◦ 충청남도와 행안부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마을 정책을 추진 중임. 일본의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JOIN)와 지역부흥협력대, 시민섹터정책기구, 아타미의 청년마을만들기 등의 사례는 청년마을 정책방향과 사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함

◦ 우선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JOIN)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 종료 후의 (청년)활동가의 지역정착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행안부 지원 종료 이후 지역에 남고자 하는 청년마을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충남형 청년마을활동가(가칭)'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2년 이내, 3+2=5년 지원) 지역 내 자립기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일거리와 생활비 지원 방안 지원

◦ 또한 행안부형 청년마을 홈페이지는 단순한 청년마을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JOIN)의 홈페이지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청년마을 소개와 함께 이주정보,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 함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충남형 청년마을 통합 플랫폼을 충청남도 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추가로 만들어, 회원제 기반의 청년·지자체·지역기업(민간기업)이 정보 제공(빈집정보, 창업 공간, 마을 일자리, 지역 내 이벤트 등) 및 상호 교류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

◦ 또한 고향회귀·교류추진기구(JOIN)과 시민섹터정책기구 등이 추진하는 공공+민간의 청년지원기금을 추진하는 것을 통해 기금조성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 함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충남 청년마을 운영진과 정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응원기금'을 조성(지역 민간기업 후원, 공무원 은퇴자 후원(기부+멘토링 등), 도+시군비 매칭, 일본의 경우 복권기금 활용)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 또한 지역 내 청년 고용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사례에서 일본 역시 지방의 청년일자리의 부족,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와 같았음. 이는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수도권 집중현황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지방에서 탈출 못하는 빈곤층의 문제도 결부된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음.

◦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청년고용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나라의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인턴 등 일시적 공공근로형태와 (중소)기업 일자리소개 및 지원 등 한정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고용)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특정지역만들기사업협동조합'사례를 참고하여 청년협동조합 기반의 계절형, 반나절 일자리 등 고용환경 조성 추진. 농산어촌의 경우 일자리의 계절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패키지를 마련하여 도내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제안 필요

◦ 아타미시 사례의 경우 행정이 주도한 사업(도시재생 등)이 아닌 U턴 청년의 자발적 주도로 시작함. 따라서 우리들은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설계가 필요함. 이를 위한 도내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 이슈 해결형 청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교육부의 RISE사업은 지역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연계 및 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졸업자에 대한 지역정착과 청년회귀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임.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지역정착 프로그램 도입, 지역정보제공 등 추진되고, 나아가 RISE사업 성과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여 대학의 지역연계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필요

◦ 아타미시에서 활동하는 machimori는 지역 내 빈 공간을 임대·매입해 청년창업 공간(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주거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음. 이러한 공간자산화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남고 활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아타미시의 청년들과 같이 청년마을(나아가

도내 청년들) 역시 지역 내 공간을 자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책적 아이디어 POINT)

☞ 도와 시군에서 매칭한 **청년 창업 및 주거 공간조성을 위한 펀드** 등을 조성. 또한 아타미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충남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청년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료 상한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 참고자료〉

고향회귀이주교류추진기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ju-join.jp/index.html

시민섹터정책기구 공식 웹사이트, https://cpri.jp/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공식 웹사이트, https://www.jil.go.jp/

마치모리 웹사이트, https://machimori.jp/